

탈모 부하직원에 "왜 빡빡이로, 혐오스럽다" 막말 논 란

기사입력 2020-01-23 20:55

생장: (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) "시원하게 밀었다고 할 게 아니라 모습이 **혐오**스러워, 국민들을 대하는 경찰관이 용모단정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남에게 그 아주 위압감을 주고 **혐오**스러워"

저 : (기분이 나빴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) "그래도 아직 외모 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한 적이 없습니다"

청장: (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) "혐오스러워, 그렇게 말대꾸하지 말고 보는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이야, 고치도록

청장의 난데없는 외모비하 모욕적인 지적에 무거운 공기가 그 방을 <mark>짓누르고 저는</mark> 소위 '멘탈이 붕괴' 되었습니다.

비교적 젊은 나이에 탈모가 진행되어 고민도 많이 했지만 부득이하게 4년째 삭발을 하고 다니지만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바쁘다는 지구대에서 그 누구보다 현장근무를 열심히 하며 수도없이 험한 욕설을 들었고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욕에 어느정 수도없이 험한 욕설을 들었고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욕에 어느정



이문수 경기북부청장, 부하 직원에 '막말' 논란

[앵커]

한 지방경찰청장이 탈모 때문에 삭발을 한 직원에게 "혐오스럽다"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.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고, 결국 이 경찰청장은 사과했습니다.

하혜빈 기자입니다.

[기자]

경기도 일산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찰관은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.

지난 15일, 신임 청장과 직원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입니다.

이 청장은 A씨에게 "왜 빡빡이로 밀었어?"라고 물었고, "탈모 때문"이라고 답하자 "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럽다"고 했습니다.

A씨는 탈모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삭발하고 지내왔습니다.

이 청장은 "외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 없다"는 A씨에게 "보는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"이라고도 말했습니다.

[A씨 :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, 어느 민원인 하나 저보고 '너무 무섭다, 저 직원 왜 이렇게 혐오스럽나'라고 말을 들은 적이 결코 없고요.]

A씨는 경찰 내부망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

조회수는 10000회가 넘었고, 댓글도 200개 넘게 달렸습니다.

대체로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.

결국 이 청장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

"외모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"면서, "빡빡 깎는 것이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"고 했습니다.

하지만 A씨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

이 청장은 "조직폭력배가 떠올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"며, "모멸감을 줄 의도는 아니었다"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.

(영상디자인: 이지원)

하혜빈 기자 (ha.hebin@jtbc.co.kr) [영상취재: 김재식 / 영상편집: 박인서]

- ▶ JTBC 뉴스 제보하기 ▶ 놓친 '뉴스룸' 다시보기
- ▶ [VOD | 신년특집 대토론] 1부-언론개혁, 2부-정치개혁

Copyright by JTBC(http://jtbc.joins.com) and JTBC Content Hub Co., Ltd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437&aid=0000229583